

# 패스트트랙 공조 '삐걱' 협상 무게추 한국당으로

민주당, 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과 합의점 못찾아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정당 연합회의 주최로 열린 '2019 여의도 불꽃집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의 무게중심이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이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패스트트랙 공조가 균열 양상으로 흐르면서다.

물밑에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의원들과 개별 접촉해 합의점을 모색해온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게되자 한국당과의 협상에 다시금 무게를 실는 모습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바른미

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방미길에 올랐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귀국 직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다양한 방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조금은 시작됐지만 아직은 조금 더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도개편·공수처설치 법안 등을 둘러싸고 강경하게 대립해왔다. 그러다 방미 기간 동안 이들 3당 원내대표 간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논의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치권에서도 이들 3당 원내대표들이 방미일정을 동행하면서 법안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

다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이 한국당과의 협상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방미 일정에 3당 원내대표만 동행한다는 점도 이러한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은 물론 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함께 중국을 방문했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편안 통과를 강하게 추진하며 한국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정의당이 5일에 걸친 여야 논의 자리에서 배제된 셈이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야권 의원들과 좀처럼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에 동참했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이 분열하면서 각 당 의원들의 표심이 흩어진 탓이다.

민주당으로선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는 민주당(129석)과 정의당(6석) 의석을 더하면 135석이다. 여기에 무소속 문희상 의장과 손혜원 의원의 의석을 합쳐도 137석으로 과반인 148석을 밑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무소속 소속 의원들 가운데 찬성 11표를 끌어와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만큼의 찬성표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선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역구가 대폭 통폐합될 것이라 추산치가 나오자 법안에 대한 부정적 기류마저 확산하고 있다. 법안이 막상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표가 겨우 과반이 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지역구 통폐합으로 인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를 장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 독해진 황교안,靑 앞서 보란 듯 '단식 투쟁'...먹힐까?

대통령 보라는 뜻...영수회담 출구전략 가능성도 리더십 논란 불식 및 대야협상 과정서 존재감 부각



문제인 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며 단식 5일째를 맞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추위도 허기짐도 여러분께서 모두 덮어 주신다"고 밝히는 등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24일 강조했다.

황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속으로 다가가는 느낌이다. 그래서 고통마저도 소중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등 3가지 조건을 내걸고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당 내부에서는 황 대표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며 국회에 마련된 단식장으로 이동할 것을 수차례 권유했지만, 황 대표는 지난 22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 발표 이후 청와대 앞에서 이틀째 철야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

다.

황 대표가 이같이 고강도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 철회 이후 탄력을 받고 있는 단식 투쟁에 대한 당 안팎의 관심을 이어가는 한편, 선거법 자동부(토의론에 부침) 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오자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 내부에서도 "명분이 약하다"며 다소 부정적이었던 황 대표의 단식에 대한 시선도 변하는 분위기다. 황 대표가 단식 5일째를 맞아 건강이 악화되자 이른바 '배수의 진'을 친 황 대표의 전략이 일부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지자들은 당직자들에게 황 대표 건강을 대비 앰블런스를 준비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에서도 의료진 대기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뜻깊은 자세로 단식농성에 임하던 황 대표가 단식

나를 만어 자리에 누웠다"며 "스스로 갖새낸 오늘부터 힘들어질 것 같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애국시민이(황 대표에게) 침낭을 건내주려 하자 경찰이 빼앗았다고 한다"며 "황 대표가 화장실에 간 동안 깔고 있던 침낭을 사복 경찰이 걷어갈려 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또 다른 이유로는 당내 리더십 약화 지적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 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황교안 리더십에는 한계가 보인다고 "비상대책위원회" 등 포스트 황교안 체제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에 원외 인사인 황 대표로서는 선거법 부의 등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앞두고 이른바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통해 제1야당 대표의 리더십을 재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황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놓고 당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보라'는 뜻이 아니겠냐며 문제인 대통령의 1대1 영수회담을 촉구하는 의사를 담고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는 황 대표의 출구전략 중 하나로 1대1 영수회담 가능성이 제기된다. 1대1 영수회담이 성사될 경우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대표로서의 리더십 재확인 물론, 향후 여야 협상과정에서도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18일 1대1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청와대는 공식 제안을 없었다며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 왕이 中외교부장 "미국, 세계 모든 불안의 근원"

중국 외교의 사령탑인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은 세계 모든 불안의 근원"이라고 미국을 비판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24일 보도했다.

그는 23일 네덜란드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근거도 없이 세계무대에서 중국을 비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특히 국제무역

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전세계에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미국은 세계 최강국으로서 세계정세의 안정에 기여해야 하나 보호무역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전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미국은 세계 모든 불안의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뉴스1

## '총리실' 진영 "검증동의서 '동'자도 안썼다"

차기 국무총리 유력설이 돌고 있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검증)동의서에 '동'자도 안 썼다"며 하마평을 부인했다.

진 장관은 이날 청와대 분관 2층 접견실에서 열린 한-브루나이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검증동의서를 안 썼다는 걸 믿어도 되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진 장관은 '자리를 옮기시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도 손사래를 치며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정치권 안팎에서 이

낙연 국무총리에 이은 문재인 정부 2대 국무총리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4선 국회의원인 진 장관은 '경륜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아왔다. 동시에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온 이력 등으로 앞서 행안부 장관으로 발탁됐을 때,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탕평인사로 주목을 받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